

Robert A. Peterson 박사, 누가-사도행전 신학, 세션 11, 사도행전 참고문헌, FF 신약성서의 브루스 행전, 사도행전의 기원과 목적, 포인 사도행전

누가복음-사도행전 신학을 강의하는 Dr. Robert A. Peterson입니다. 세션 11, 사도행전 참고문헌, FF 브루스, 신약성경의 사도행전, 사도행전의 기원과 목적, 사도행전의 바울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과 신학에 대한 강의를 계속합니다. 누가복음에 대한 강의를 마치고 이제 우리는 누가복음의 두 번째 책인 사도행전으로 관심을 돌립니다. 참고문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거기 벽에 있는 걸 한번 살펴봐야겠어요.

네 가지 소스가 있습니다. 현재 주님과 함께 있는 유명한 신약학자인 FF 브루스는 사실 고전 학자였으며, 고전적인 참고 자료가 가득한 사도행전에 대한 주석을 썼고, 이로 인해 영국 맨체스터 대학교에 채용되었습니다. 전 세계, 특히 미국에서 복음주의 개혁을 가져오는 데 도움을 주고 엄청난 영향을 미친 복음주의 신약성서 학자들의 훈련된 수 많은 사람들. 그 후 나중에 훨씬 더 성숙한 신약 학자로서 그들의 첫 번째 사도행전 주석은 그가 고전에서 신약으로의 이동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신약성서인 사도행전에 대한 새로운 국제 주석을 썼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이전 주석의 학문적 뒷받침을 받고 있지만, 이제 신학적인 방향으로 전환하여 사도행전의 메시지와 사도행전을 통해 전달된 바울의 신학에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신약학 교수인 데니스 존슨(Dennis Johnson)은 캘리포니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실천신학, 아마도 설교학을 생각합니다. 그가 쓴 모든 내용은 견고하고 정통적이며 매우 도움이 됩니다.

사도행전의 메시지도 예외는 아닙니다. 완전한 논평은 아닙니다. 선택적이지만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에게 올바른 방향을 알려주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줄 뿐입니다.

하워드 마샬은 어떤 면에서는 복음주의 신약학자들을 훈련시키는 지도자로서 FF 브루스의 후계자입니다. 그는 Tyndale 신약 주석 시리즈에서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교체 볼륨은 훨씬 더 실질적하도록 교체했습니다.

실제로 좋고 나쁘다. 대체 책 이전의 틴데일은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않았고, 성경이 깊이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자세히 성경을 연구하고 싶어하는 다양한 종류의 기독교인을 위한 나의 첫 번째 추천서였습니다. 평탄한데, 이는 해설 시리즈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것들은 정통적이고, 원문적이며, 모든 문장을 다루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신약성서의 모든 문단을 다루며, 물론 더 오래되고 더 큰 구약성서의 책에서는 훨씬 더 큰 단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 책은 더 학문적이고 도움이 되며, 학자와 목회자 등에게 하워드 마샬의 사도행전은 정말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네 번째 것은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정말 장관입니다. 진지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번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나 교회에 관해 누가복음이 아니라, 이번에는 누가복음 제2권인 사도행전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FF Bruce, 사도행전, 신약에 대한 새로운 국제 주석입니다. 서론으로 그는 신약성서의 사도행전과 사도행전의 기원과 목적, 그리고 사도행전의 바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임명받은 것은 신약전서의 강사였습니다.

학교 2학년 때 나는 은혜롭게도 신약 및 신학 조교수로 승진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그런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 펜실베이니아 주 해트필드에 있는 올드 성서 신학대학원에 있었습니다. 나는 몇 년 후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커버넌트 신학교에서 조직신학 교수로 25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내가 학생 시절, 그리고 신약성경의 절반 교수이자 신학의 절반으로서 10년 동안 성경에서 얻은 주석적 기초는 내 자신의 발전에 매우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브루스는 나를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아마도 그는 그가

쓴 특정 Pauline 책의 전문가들에 의해 우회되었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그의 작품은 견고합니다. 도움이 됩니다.

신약성서에 행함. 사도행전은 1세기 기독교인이 작성하고 특정 테오필루스에게 헌정한 기독교 기원사(A History of Christian Origins)의 제2권에 AD 2세기 중반부터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역사서의 제1권은 신약 정경에 포함된 27개 문서 중 하나로 현존합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그것은 일반적으로 복음으로 알려진 작품입니다. 원래 이 두 권은 의심할 바 없이 하나의 완전하고 독립적인 작품으로 함께 유통되었지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복음서가 시작될 무렵부터, 사실 요한복음이 출판된 직후부터 정경의 네 복음서는 한 권으로 모아져 사복음서로 유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두 가지 역사 중 첫 번째 책이 두 번째 책에서 분리되어 다른 작가들의 세 작품에 첨부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책은 예수의 이야기와 관련된 거의 동일한 기반을 다루고 그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로 끝납니다. 따라서 두 번째 책은 그 자체의 경력을 추구하도록 남겨졌지만 그것이 증명했듯이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경력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는 사도행전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복음서가 함께 모여 하나의 모음집을 형성한 것과 거의 동시에, 또 다른 기독교 문서 모음집, 즉 바울 서신 모음집이 형성되었습니다. 복음서와 사도서라고 불리는 이 두 권의 모음집은 신약성서의 대부분을 구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단히 사도행전이라고 부를 문서인 기독교 기원사의 제2권이 없었다면 이 두 컬렉션 사이에 공백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두 컬렉션을 서로 연관시키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했습니다. 첫 번째 모음집과 관련하여 사도행전은 첫 번째 모음집, 즉 고유한 속편부터 그 모음집에 포함된 네 문서 중 하나인 세 번째 복음서에 이르는 일반적인 속편을 구성합니다. 두 번째 모음집과 관련하여 사도행전은 바울의 글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서술적 배경을 제공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이 바울이 자신의 편지에서 스스로 제시한 사도적 주장의 타당성에 대한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중요성은 2세기 중반에 마르키온과 그의 가르침이 촉발된 논쟁의 결과로 더욱 강조되었습니다. 서기 144년경 마르시온은 그리스도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계시와 같이 그분이 오시기 전에 있었던 어떤 것과도 전혀 관련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종교의 계시자이시며, 바울은 이 새로운 종교를 순수하게, 즉 구약성서나 유대교의 영향에 의해 오염되지 않은 상태로 충실하게 보존한 유일한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마르시온은 자신이 새로운 시대를 위한 신성한 경전의 참된 정경이라고 믿는 것을 작성했습니다. 이 정경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제3복음서의 적절하게 삭제된 개정판인 복음서라고 불리고, 다른 하나는 사도서라고 불린다. 마르시온의 복음서는 구약과 유대교에 대한 많은 언급을 제거한 채 누가복음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마르시온의 정경에는 바울이 교회에 보낸 아홉 편지 편지와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를 유사하게 편집한 사도서가 들어 있습니다. 마르시온의 정경의 출판은 로마 교회와 가톨릭 소형 신앙을 고수하는 다른 교회들에 도전이자 자극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성경의 정경을 만들도록 강요하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로 약간의 변형을 거쳐 가톨릭 교회에 의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그 정경을 더 정확하게 정의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들에게 신약성서의 정경은 구약성서의 정경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제정한 보완책으로서 구약의 정경과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은 하나의 문서가 아니라 네 개의 문서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 네 개에는 마르시온이 왜곡된 형식으로 출판한 문서의 실제 텍스트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을 위해 사도는 열 개가 아니라 열세 개의 바울 서신을 포함했고, 바울의 서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의 서신도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복음과 사도를 연결하는 사도행전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증거를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마르키온이 부인했던 다른 사도들의 사도직에

대한 증거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거짓 사도들이요, 예수 안에서 발견한 진리를 부패시키는 자들입니다. 기독교 정경에서 사도행전의 중추적인 위치는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것처럼 이제 높이 평가됩니다. 이러한 감사의 한 가지 증거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복음과 사도 사이에 사도행전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 이후로 알려진 제목입니다. 사도행전. 현존하는 증거에 따르면, 이 제목은 아마도 서기 150년에서 180년 사이로 추정되는 문서인 제3복음서의 반마르시오파 서문에서 처음으로 주어졌으며, 이 문서는 아마도 두 권의 저자가 누구인지 나타내는 최초의 현존 문서일 것입니다. 안디옥의 의사 누가에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의 제목은 사도행전의 다른 사도들보다 바울에 대해 훨씬 더 많이 언급되어 있지만, 바울만이 그리스도의 충실한 사도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 의도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은 2세기 후반에 로마의 정교회에서 나온 또 다른 문서인 모라토리엄 성서의 정경에서 과장되게 강조되었는데, 그 책의 이름은 사도행전입니다. 무라 토리엄 캐논은 1740년 LA 무라토리 추기경이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렸습니다.

사도행전의 기원과 목적. 2세기 중반에 사도행전이 수행한 중요한 역할은 많은 학자들에게 최종 형태는 어쨌든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그 당시에 작성되었음을 암시해 왔습니다. 이러한 관점에 반대되는 두 가지 고려 사항이 특히 중요합니다.

첫째, 누가-사도행전 전체와 특히 사도행전의 역사적, 지리적, 정치적 분위기는 틀림없이 2세기가 아니라 1세기의 분위기와 같습니다. 둘째, 이 작품의 내적 증거는 그 일차적인 목적이 바울의 사도직을 입증하여 다른 사도들도 그만큼 신실했다는 것을 보여주거나 바울과 다른 사도들을 다음과 같은 입장에서 대표하는 것임을 암시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상호 존중과 조화. 물론 적절한 시기에 이러한 목적을 달성했지만 이것이 사도행전의 주요 강조점은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주요 목적은 앞선 논문인 누가복음의 계속되는 목적과 분리되어 고려될 수 없습니다. 두 부분은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일관된 목적을 지닌 하나의 통합된 전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추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이중 작업의 시작 부분에서 우리에게 명시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저자 자신의 말로 개정된 표준역에서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 된 자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아 나도 좋은 줄 알았노라 얼마 전부터 모든 일을 자세히 살펴보며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려고 하였으니 이는 각하로 알고 있는 바의 참된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누가복음 1:1~4 RSV. 이 말로 누가는 세 번째 복음서의 목적뿐만 아니라 그 복음서의 첫 번째 책인 전체 사역의 목적을 설명합니다. 그 자신은 자신의 역사에 기록된 이전 사건의 목격자라고 주장할 수는 없었지만 그러한 목격자가 제공할 수 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이런 종류의 정보를 바탕으로 설명을 작성한 최초의 사람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설명은 철저하고 정확한 조사에 기초하며 적절한 순서로 정리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석 전반에 걸쳐 브루스는 사도행전인 누가복음에 대한 그의 NICNT를 언급하고 있으며 이중 작업의 저자가 인정된다는 점을 여기서 간략하게 말하겠습니다. 누가와 저자에 대한 외부 증거는 유예 목록과 반마르시오파 서문을 넘어 2세기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누가-사도행전의 원문은 저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지만, 누가와 저자에 대한 믿음은 1128장과 2013장의 해설과 주석에서 알 수 있듯이 초기에 사도행전 본문의 한두 가지 개정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보여주다. 일반적으로 신약성서, 특히 누가-행전의 증거는 외부 증거와 충돌하지 않으며, 사실 작품 자체도 외부 증거와 충돌을 보이고, 실례지만 실제로는 그 증거를 보여줍니다. 작업 자체를 수행합니다. 그 문장을 다시 할게요.

일반적으로 신약성서, 특히 누가-사도행전의 증거는 외부 증거와 충돌하지 않으며, 사실 그 자체는 때때로 다음과 같은 동료였던 누군가가 지은 흔적을 보여줍니다. 바울과 그와 함께 로마로 여행한 사람은 누가가 그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4절과 빌레몬서 24장을 참조하십시오. 바울과 그의 친구들의 여행을 다루는 사도행전 이야기의 일부가 1인칭 복수형으로 표현되어 “우리” 부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추론은 전체 작품의 저자가 그 특정 여행에서 바울과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누가는 자신의 역사를 기록한 목적이 테오필루스라는 사람에게 기독교의 기원에 대해 정확하고 질서정연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발표합니다. 테오필루스는 이미 이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야기의 뒷부분에서 그는 주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초기 부분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직접 정보원에게 의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책은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 고난과 승리의 사역에 대한 사도적 증거의 기록입니다. 그의 두 번째 책은 예수의 부활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며 약 30년 동안 계속됩니다. 그는 유대에서 로마에 이르기까지 기독교의 발전 과정을 추적하고, 제국 당국의 전폭적인 목인을 받아 제국의 중심부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수석 전령관으로 끝을 맺습니다.

누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식을 검토해 보면, 특히 제2권에서 그가 변증적인 강조를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1세기 후반에 기독교에 대해 대중적으로 제기된 비난에 맞서 기독교를 변호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로마제국에서 법과 질서를 중시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기독교가 심각한 불행, 심각한 장애로 시작되었다는 점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그 창립자는 선동죄로 로마 총독에 의해 사형 선고를 받은 것으로 인정되었으며, 그가 시작한 운동은 로마 속주와 로마 자체에서 확산되는 곳마다 소동과 무질서가 뒤따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루크는 이 장애를 줄이거 나 오히려 완전히 제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형은 중대한 정의의 유산으로 제시됩니다.

사실, 그는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폭동죄로 고발을 당했지만 빌라도는 그에게 혐의가 없다고 선언했고,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는 그 주장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동의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 이하입니다. 빌라도가 자신의 판단에 반하여 그들이 요구한 사형 선고를 내리도록 강요한 것은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의 영향력과 그들이 선동한 도시 폭도들의 소란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포함한 다양한 관리들이 바울과 다른 기독교 선교사들에 대해 호의를 보이거나 적어도 반대자들이 그들에게 제기하는 비난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키프로스에서는 그 섬의 저명한 친공의회가 사도들과 그들이 전하는 소식에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13:7, 12장.

사도행전 13장 7절은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에 대해 말합니다. 그는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애쓰던 총명한 사람인 공의회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12절, 그 때에 친공회가 그 된 일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에 크게 놀랐더라.

주님의 가르침과 그가 본 것, 즉 바울이 거짓 선지자를 저주하고 그 사람이 복음을 대적하였기 때문에 그를 일시적으로 소경으로 만든 것이 결합되었으며, 그것은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반응을 이끌어 내기에 충분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일시적인 심판입니다. 빌립보에서 그 식민지의 대학 총독들은 바울과 실라가 불법적으로 구타하고 투옥된 데 대해 사과했습니다.

16:37 이하. 당신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합니다. 바울은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사람들이 선동하여 바울을 체포하고 실라를 매질하고 차꼬에 가두었습니다. 하나님은 지진을 일으키시고 기적적으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고, 분명히 사람들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자기 죄수들이 도망할 경우 생명의 형벌로 보호해 주었기 때문에 자살하려는 간수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는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나는 그의 질문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신할 수 없지만, 우리는 바울의 대답에 있어서 바울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과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쨌든 그는 자기가 세례를 받은 줄로 믿었더라 36절 날이 밝았을 때에 상관들이 그 사람들을 놓으라 하여 경찰을 보내니 간수는 관원들이 너희를 보내라 하였으니 오라고 이 말을 바울에게 고하니 이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그들이 로마 시민권 있는 우리를 죄도 정치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쫓아내느냐 아니, 그들이 스스로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도록 놔두세요.

경찰이 이 말을 행정관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사과하고 데리고 나가라 하더라. 아, 고린도에서 그것은 사도행전 37장 16장이었고, 이어서 고린도에서 아가야 지방 공의회 갈리오네 지방 유대인 공동체가 바울과 그의 동료들을 고발하는 것은 유대 종교의 내부 문제에 관한 것이라고 선언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그들은 로마법을 위반한 죄가 없습니다. 그건 로마서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8:12 이하입니다.

그러나 아가야 공회 갈리오가 이르자 유대인들이 연합하여 바울을 공격하여 이 사람이 율법을 어겨 하나님을 섬기라고 사람들을 권유하고 있다며 그를 법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입을 열려고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만일 그것이 불의한 일이나 악한 범죄에 관한 문제라면 유대인들이여, 내가 너희의 불평을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문제는 말과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니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대한 판사가 되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을 재판소에서 몰아냈습니다. 아, 사도행전 18:12 이하입니다.

에베소에서는 아시아 지방의 지도자인 아시아 관원들이 바울의 친구입니다. 그리고 시 행정부의 최고 경영자(CEO)는 그에게 공공 신성 모독 혐의를 면제해 줍니다. 19:31, 35 이후.

심지어 그의 친구인 아시아 관장들 중 몇 사람이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하니라.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는 크다고 외치며 바울을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는 무리를 서기가 조용하게 하였더니 무리를 조용하게 하였느니라. 이르시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성이 큰 아데미의 전을 지키는 곳인 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그것은 고대 세계의 불가사의 중 하나이자 거대한 사원이자 하늘에서 떨어진 성스러운 돌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부인될 수 없으니 너희는 조용히 하고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라 이 사람들은 신성을 모독하지도 아니하고 우리 여신을 모독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너희가 여기로 데려왔음이라. 그러므로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든지 고발할 일이 있으면 법정이 열려 있고 공의회가 열리느니라.

그들이 서로 고소하게 하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더 생각하고 무엇을 더 구하면 정기 총회에서 해결하리라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폭동죄로 기소될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동을 정당화할 명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한 후 모임을 해산시켰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총독 벨릭스와 베스도는 산헤드린이 그를 고발한 심각한 범죄에 대해 바울이 무죄임을 연달아 확인합니다. 유대인 고객인 헤롯 아그리파 2세 왕과 그의 여동생 베르니케는 그가 사형을 당하거나 투옥될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는 데 동의합니다.

사도행전 24:1부터 26:32까지. 그리고 그는 로마 시민으로서 자신의 사건을 로마 황제에게 심리해 달라고 호소했을 때, 아무도 그를 방해하지 않고 끊임없는 감시를 받으며 그 도시에서 2년 동안 선교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입니다.

바울은 2년 동안 자비로 그곳에 살면서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영접하고, 담대히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만약 기독교가 널리 믿어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불법적인 운동이었다면, 바울은 자신이 맡은 황실 경비대에 의해 그것을 전파하는 것이 확실히 허용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토록 많은 분쟁과 무질서가 어떻게 기독교의 발전을 가져왔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누가는 이에 대한 책임이 유대 당국에 있다고 비난합니다.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서, 바울을 벨릭스와 베스도 앞에서 고소한 자는 예루살렘 산헤드린이었습니다. 로마 지방에서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발생한 소란의 대부분은 그들 자신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이방인 이웃들이 복음을 믿을 때 짜증을 낸 그 지역 유대인 공동체에 의해 촉발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변증적인 내용을 담은 작품에 적합한 삶의 환경을 찾아야 합니다. 누가는 기독교가 불법이 아니었음을 거듭거듭 보여줍니다. 그것은 오히려 합법적이고 로마법을 존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데오빌로와 사도행전을 듣는 다른 모든 사람과 독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최근 한 가지 매력적인 제안은 기독교의 주요 고발자인 팔레스타인의 유대인 당국이 제국에 대한 반란으로 인해 로마인의 눈에 완전히 불신을 받았던 서기 66~70년 기간을 지적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반항적인 유대인들과는 달리 그리스도인들은 제국에 불충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특히 효과적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유대 당국은 항상 기독교를 부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나는 FF Bruce에 대해 큰 존경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가 이 좋은 논평을 쓴 이후에도 그 논문이 승리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확실히, 사도행전이나 심지어 누가복음에는 서기 70년 예루살렘 성전의 도시 멸망이 이 글이 기록되기 이전에 일어났다고 가정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에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는데, 우리는 그 사건이 얼마 지나지 않아 작성된 사과문에 상당히 분명하게 반영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것은 서기 64년 대화재 이후에 발생한 로마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였습니다. 이는

바울이 50년대에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했던 공식적인 정책의 종말을 의미했습니다.

누가가 서기 60년 이전에 기독교에 유리한 제국 관리들의 결정을 언급한 것은 모든 사람이 60년대 네로의 행동과 관련된 결정이 완전히 뒤집혔다는 것을 알았을 때 관련성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확실히, 서기 68년 네로의 통치 말기에 이러한 유리한 판결의 관계는 네로의 반기독교 정책이 그 무죄한 운동에 대한 무책임하고 범죄적인 공격이었다는 것을 암시하려는 의도였을 것입니다. 로마 권위의 많은 합당한 대표자들에 의해 충분히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는 네로의 반기독교 정책이 64년에 그랬던 것처럼 아직까지 드러났다는 암시가 전혀 없습니다.

전통적으로 네로식 박해의 사건이었던 바울의 죽음이 사도행전에서 언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누가복음의 목적에 따른 책의 연대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그 일이 성취되어 바울을 로마로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바울이 사도행전이 기록되기 전에 정죄받고 처형당했다면 우리는 이 책, 특히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실제로 발견한 것과는 다소 다른 분위기와 강조점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기록되었을 당시 기독교는 의심스러웠지만 아직 금지되지는 않았다고 가정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만일 우리가 누가복음의 역사를 64년의 박해보다 조금 더 일찍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작품에 적합한 삶의 환경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2년 동안 사도로서 증언하고, 가이사에게 상소하여 발생한 법적 절차는 로마 중산층의 모든 로마인의 관심을 그리스도교로 가져왔음에 틀림없습니다. 이전에 그들이 그것을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그들은 그것을 오론테스의 하수구가 테베레 강으로 배출되면서 도시의 하층부를 감염시키는 또 하나의 비열한 동부 종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사례로 인해 일부 사람들은 그리스도교에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데오빌로가 로마의 지성적인 독서 대중, 오히려 청취 대중의 대표였다면, 여기에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다른 곳에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기독교의 성장과 발전에 대한 더 정확한 설명을 제공하고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로마법과 관련된 바울과 다른 기독교인들의 견해. 누가의 서술 자체는 바울의 항소가 황실 법정에서 심리되기 위해 제기되었을 때 변호를 위한 증거로 사용되도록 직접적으로 의도되었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황실 자료 중 일부는 그러한 목적에 유용했을 것이지만 누가복음에는 법의학적으로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37장에 나오는 항해와 파선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나 성령의 지배적인 역할에 대한 강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령에 대한 이러한 강조는 누가가 생각했던 지성적인 로마 대중에게도 똑같이 부적절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별 의미가 없었겠지만, 테오�필루스 자신도 새로운 신앙으로 개종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누가는 이 믿음의 발전이 단지 인간의 계획에 따른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신성한 대리자에 의해 통제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누가가 변증하려는 목적에 기여했을 수도 있지만, 로마 법정에서 변론으로서는 별로 쓸모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누가는 기독교의 법을 준수하는 성격을 확립하기 위해 세속 당국에 전달된 특정 유형의 변증 분야에서 최초의 기독교 변증가 중 한 사람입니다. 그는 절대적으로 선구자이지만 그의 작업 과정에서 특히 사도행전의 일부 연설에서 다른 형태의 변증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연설은 유대교가 아니라 기독교가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 주어진 계시의 참된 성취임을 보여주기 위해 고안된 유대인에 대한 기독교 변증의 원형입니다.

마찬가지로 17장의 아테네에서의 바울의 연설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이교의 우상숭배적 허영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고안된 이교도에 대한 기독교 변증의 초기 사례 중 하나입니다. 26장에서 바울이 아그립바 앞에서 한 연설은 물론 그의 선교 경력에 대한 최고의 변증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

바울은 여러 서신에서 자신의 사도적 지위를 부인하고 자신의 사역에 참석한 사도 의 표징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맞서 자신의 사도적

지위를 변호할 필요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그가 이러한 표적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에게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었지만, 그의 서신을 읽는 다른 독자들은 바울의 사도적 활동에 대한 기록이 없었다면 이 호소의 타당성을 확신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누가 사도행전에서 보존했습니다. 누구도 사도행전을 읽고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2세기 초에 이미 충분히 명백했습니다. 터툴리안은 이단자들, 특히 사도행전의 권위를 거부하면서도 그토록 확신에 차서 오로지 바울의 사도적 권위에만 호소했던 마르키온파의 불일치를 지적합니다. 인용문, 먼저 바울이 그들에게 말한 사람이 누구인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는 사도가 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어떻게 사도가 되었습니까? 이것은 이단자들에 대한 터툴리안의 처방에 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에 호소하지 않고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적절한 대답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사도행전의 연대를 2세기 중반으로 정하고 그것을 반마르키온파 반동의 산물로 간주하는 사람들은 그 목적 중 하나가 마르키온이 부인했던 바울과 마찬가지로 베드로와 나머지 열두 제자도 사도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바울이 베드로와 나머지 열두 사도와 마찬가지로 사도였으며 실제로 그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사실을 더욱 결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가 말한 것과 정확히 같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비교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보여줌으로써 사도행전은 누가의 즉각적인 의도를 넘어서는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영향력이 에게 해 선교 지역, 특히 그가 떠난 직후 아시아 지방에서 쇠퇴했고, 유대교적인 대적들이 일시적인 승리를 거두었다는 견해에 대해 말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브루스가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쓴 합리적인 추론이며 사도행전 20장 29절과 30절에 있는 바울의 예감과 일치한다. 그러나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머지않아 바울의 이름과 명성이 확고히 재확립되고 그가 복음을 전한 지역을 존경했습니다.

바울의 기억이 이렇게 입증되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곳 교회의 처분은 유대교파의 명성에 큰 타격을 입혔고, 둘째, 에게해 교회들 사이에 사도행전이 유포되면서 누가가 처음으로 그의 역사에 관해 언급한 것보다 더 많은 대중이 있어야 했다. 바울에 대한 관심이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실제로 에드워드 J. 굿스피드(Edward J. Goodspeed)가 제안한 것처럼, 그것은 그의 편지들을 문학적 코퍼스로 수집하고 교회들, 즉 바울 코퍼스 인 폴리눔 코퍼스(corpus Paulinum)로 배포하도록 자극했을 수 있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폴은 루크의 영웅이다. 그가 우리에게 사도에 대해 얼마나 지을 수 없는 그림을 주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이 그림을 주면서 그는 기독교 확장의 기록에 얼마나 큰 공헌을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실 그의 이야기는 문명사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지닌 원천이다. 오늘날 전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기독교가 유럽의 종교로 간주되는 것은 좋은 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아시아에서 발생한 신앙이 어떻게 유럽 종교와 통합적으로 연관되게 되었는가? 아시아 문명보다는.

그 대답은 확실히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로마 제국이 시작된 후 30년 동안 로마 제국의 선도적인 전령이자 선교사가 된 로마 시민이 로마 제국의 전략적 중심지와 통신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왕국을 섬기는 데로 바뀔 수 있는지를 본 로마 시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센터와 의사소통 경로를 따라 기독교 신앙을 심었습니다. “10년이 조금 넘는 기간 에 성 바울은 갈라디아 마케도니아 아가야와 아시아 제국의 4개 속주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서기 47년 이전에는 서기 57년까지 이 지역에 교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바울은 마치 자신의 사업이 그곳에서 완료된 것처럼 말할 수 있었고, 그가 세운 교회가 그의 부재로 인해 멸망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고 먼 서쪽으로 광범위한 여행을 계획할 수 있었습니다. 지도하고 지원합니다.”

롤랜드 알렌(Roland Allen)의 선교 방법인 세인트 폴(Saint Paul) 또는 루크(Luke)는 세계 역사상 인류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사업 중 하나인 이 사업의 역사가입니다. 그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바울의 활동은 그가 길고 짧은 여행을 떠났던 특정 중심지를

기반으로 했으며, 수년에 걸쳐 한 지방에서 다른 지방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는 1953년 영어로 번역된 마틴 디벨리우스(Martin Dibelius)의 바울(Paul) 책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중심지 중에는 바울이 나바테아 아라비아로 침투한 다마스쿠스가 있었습니다. 만일 그가 환상에서 그곳에 정착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지 않았다면 (행 22:17-21) 그는 자신의 다음 중심지를 예루살렘으로 삼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고향 다소로 돌아가서 그 중심지에서 길리기아와 시리아 길리기아와 시리아는 기록되지 않은 10년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 후, 더 짧거나 더 긴 기간 동안 그의 연속 중심지는 안디옥, 고린도, 에베소, 로마였습니다.

그가 이 여러 중심지에서 일하며 이 곳에서 저 곳으로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성취한 것 중 일부는 그의 서신에 암시된 내용에서 수집될 수 있지만 일관된 기록에 대해 우리가 감사해야 할 사람은 누가입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더 가난했을 것입니다. 바울 서신에는 사도행전이 없었다면 얼마나 더 있었을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FF 브루스는 사도행전 주석의 이 서론을 두 가지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오, 복된 사도 바울의 설교를 통해 복음이 온 세상에 빛을 발하게 하신 하느님이시여. 우리가 그분의 놀라운 회심과 기억을 통해 그분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르치신 거룩한 교리를 따름으로써 동일한 것에 대한 감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

그리고 한 번 더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칭찬받는 의사 누가를 복음 전도자요 영혼의 의사로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의 전하신 교리의 좋은 약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게 하옵소서.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영혼들이 치유받게 하소서 . 아멘.

정말 즐거운 결말이군요. 다음 강의에서 우리는 사도행전의 메시지에 대한 데니스 존슨(Dennis Johnson)의 도움이 되는 글을 살펴볼 것입니다.

누가복음-사도행전 신학을 강의하는 Dr. Robert A. Peterson입니다. 세션 11, 사도행전 참고문헌, FF 브루스, 신약성경의 사도행전, 사도행전의 기원과 목적,

사도행전의 바울입니다.